

이름 _____ 신이레 _____

1. 파견대학 관련

파견대학	미국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11.8.23 ~ 2012.05.15
귀국여부	네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p>COMS 1361 UG Public Speaking A 3.000 12.00 Zhang 교수님 중국인이라 같은 아시아권 학생들 배려해줌</p> <p>COMS 2382 UG Spe For Business III Professions A 3.000 12.00 Jagger 교수님 타국학생들에 대한 배려 좋음 수업 굳! 미국인 엄마느낌! 정말 잘해줌!</p> <p>MKTG 3310 UG Principles Of Marketing A 3.000 12.00 Newbold 교수님 차근차근 잘가르쳐주시고 유머감각있으셔서 수업 듣기 재밌음. 공부량이 적은건 아니지만 시험도 센스있게 내주심</p> <p>MKTG 3320 UG Consumer Behavior B 3.000 9.00 Lee, Renee 여자분 교수님 숙제가 너무 많음 하지만 시험도 쉽지 않고 배우는건 그만큼 많지만 힘듦</p>
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	<p>COMS 1331 UG Intro To Human Communication 3.000 Thibodeaux 교수님 나이가 많으셔서 책 내용 줄줄 읽으시고 예를 들어주시는데 너무 재미없고 지루한 수업ㅠ 그리고 미친 시험을 6번이나 봄 —.—..멘붕 짬...공부 짱많이함</p> <p>COMS 2386 U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3.000 Jhang 온라인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매주 숙제 너무 힘듦 ㅠ 온라인강의는 듣지 말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수업내용의 질은 좋음!</p> <p>COUN 2332 UG Career Development 3.000 Tina 직업선택에 대한 교양과목 같은 느낌 어렵지않고 다만 매번 퀴즈가 있어서 좀 귀찮다. 영문이력서 작성과 영어인터뷰로 배울게 많은 수업! 좀 귀찮지만 좋음!</p> <p>COUN 3332 UG Therapeutic Play Skills 3.000 Jennifer 교수님 너무 착하시고 소규모 7인 8인 수업이여서 영어를 더 가까이서 듣고 말할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수업! 최고! 수업 내용이 어렵지 않고 유아교육관심있거나 미래부모공부하고싶으면 최고!</p>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p>1year insurance Fee = \$830</p> <p>Transcripts fee \$12 *2 = \$24</p> <p>Monthly rent fee 400*10 = \$4000</p> <p>Monthly Grocery shopping \$200*10= \$2000?</p> <p>Travel three times 1000*3= \$3000...?</p> <p>Shopping = \$1000...?</p> <p>Total=\$11000...? 아마도~ 오버되도 15000안넘을 듯 합니다.</p>

2. 생활전반 관련

숙소	외부 아파트 Arbors of Sam Houston
숙소비용	325+ 전기세, 물, 기타비용(총 대량 360~400나음)
숙소평가	아파트 계약하기까지는 매니저들 아주아주 착하지만 하고나서부터 서비스 거지같이 나빠짐! 아파트는 약간 오래되서 찌든 냄새가 좀 나는 편! 방향제 꼭 필요!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하기엔 아주아주 좋은 아파트! 10개월 계약가능한 아파트가 많지 않음! 학교와 거리 아주 가까움! 10분! 다만 장보기는 좀 멀어서 아파트매니저한테 부탁하면 태워줌! 오피스 일처리가 많이 느려서 빠침!
식사	Meal Plan (비싸서 안함! 패스트푸드만 먹고 살수는 없잖아요 ㅠ) 학교식당 개별이용 (보통 1식에 점심은 7~8달러, 저녁은 10달러쯤) 주로 직접 요리해서 식비 절감하고 필요할 때만 나가서 먹었습니다.
식사비용	매달 150쯤? 2주에 한번씩 쇼핑할 때 싸면 20~40불 많이 사면 70불인데요 기타 사먹는 거 합치면 아마 150~200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서 먹으려면 매번 차를 타고 나가야되서 그냥 집에서 다 해먹는 편이었습니다. 식비절감은 매우매우 잘했음!
식사평가	대부분이 패스트푸드기 때문에 살이 엄청엄청 찢 수 있으니 적당량을 먹고 작은 통이나 음식 담은 비닐팩에 담아서 나중에 나눠먹는 식습관이 좋습니다! 식재료가 매우 싼 편이니 요리해먹는걸 좋아한다면 매우 좋음! 사 먹는것도 대부분 맛은 있으나 살이...ㅠ 가격도 ㅠ
보험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만 허용한다고 해서 가자마자 바로 830달러 1년거 학교에 냈습니다.
한달 생활비(대략)	책값을 포함한다면 권당 싸면 5달러나 무료제공 비싸면 200달러가 넘는 비싼 책도 있으니 각자 수업선택 교수선택 시간선택도 중요하고요. 보통 100~150달러 밖에 안들은거 같습니다.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알고 갔어도 그런 시행 착오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1. 수강신청 - 학교마다 교환학생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그분과 이메일로 듣고 싶은, 또는 공부하고 싶은 과목들이 있었다면 꼭 질문해서 알아보고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과목이 과목list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 수 도 있구요. 혹은 일반 정규학생들에 비해 수강신청이 늦는 경우 수강인원이 마감되어 수강신청을 못할 경우는 그 담당자님이 학과나 교수님과 연락해서 교환학생이니 한명 더 넣어달라고 말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2. 숙소 - 보통 기숙사를 선호하시겠지만 제가 있던 SHSU에서는 아파트가 가깝고 가격도 비교적 같거나 저렴해서 더욱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가는 학교 주변의 아파트와 기숙사를 잘 비교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3. 외국인들과 교류 - 첫 번째 명심해야 될 점은 우리학교에 본 외국인 학생들과 그곳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은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지도,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좋은 점을 더욱 더 많이 말을 하고 교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만 기숙사나 아파트나 룸메이트를 잘 못 만나는 케이스가 5명의 4명으로 잘 만나는 경우는 반대로 5명 중 1명 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잘 못 만난다기보다는 만나도 서로 문화가 다르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미국인들의 경우 룸메이트여도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지 서로 챙기고 도와주는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4. 친구사귀기 - 앞에 말한 것과 같이 서양과 한국은 문화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친구를 만드는데 큰 벽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의견 표현과 함께라는 공동체 관념보다는 개인주의적인 면을 이해하고 공통되는 관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에서는 과제를 같이 하는 친구에서 더 친해지면 밥도 같이 먹거나 파티를 같이 갈 수 도 있고 종교적인 모임에서 만나서 이어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어떤 단체가 유명하고 교환학생과 같은 외국인들이 교류하고 만나는 모임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5. 영어공부 - 교환학생을 가시면 생활하는 모든 것이 영어로 이루어 진다고 방심하시고 그냥 오리겟지 하고 생각하시면 그 실력이 향상하는 폭은 주변의 노력하는 사람에 비해 아주 적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들기 어렵지만 주변에 항상 같이 지내고 어울릴 수 있는 친구나 모임을 두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듣는 속도, 말하는 속도를 원어민들과 같이 있다 보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내 인생 단 한번의 특별한 경험>

2011년에 교환학생으로써 미국에 가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온 현재, 그리고 제 꿈꾸는 미래의 모습도 바뀌 준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적응하며 노력했었던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를 극복하고 미국에서 그 개인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우고 저를 성장하게 해준 이 1년의 시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시작>

교환학생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교환학생이 쉽고 즐겁게 해외에서 지내며 영어실력을 쌓고 온다고 꿈꿉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미국에 오고 일주일도 채 안되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해왔던 영어공부로 막상 가서 써봤더니, 제 영어를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거나 미국인사람들의 영어가 너무 빠르고 귀에 잘 안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 와서 원어민들 앞에서 영어로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첫 학기는 주로 리스닝을 중심으로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수업도 겨우겨우 따라가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단순히 원어민친구들과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 안에서 경쟁을 하며 과제와 시험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원어민이랑 경쟁이라니' 그를 계기로 교환학생을 오기 전에 너무 쉽게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주변의 교수님과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도 여기 미국에까지 와서 영어로 수업을 듣는 데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변에서 그 노력을 봐주는 모습에서 점차 영어완벽 강박증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큰 고비를 넘기고 나니 점차 그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해버리는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제 교환학생 생활에 또 다른 목표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4.0만점에 3.5이상 학생들에게만 수여된다고 하는 Dean's List라는 것을 매 학기마다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두 번의 학기 동안 Dean's List에 올라 받은 두 상장을 손에 쥐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문화>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의 문화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서양인문화는 예의를 바르고 신사적이다' 라는 통념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너 있고 착한 친구들만 봐서 그런지 가서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현실적인 미국의 개인주의문화를 보면서 그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론 그런 이미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지내보면서 느낀 점은 제일 다른 한가지는 개인주의문화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개인주의, 개개인의 관심이 아주 다양하고 그것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이 매우 다르고 그것에 대해 의견표출도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에 수업에서도 보이는데 때때로 그것이 불쾌감이나 거북할 것 같은데 너도나도 직접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미국은 다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는 상대방에 따라 직설적인 화법보다는 돌려서 말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여기서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에서 보면 미국의 가장 큰 매력인 듯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녀를 갖고 손자, 손녀들을 갖은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나이구분 없이 개인적인 생활을 즐기고 추구한다는 것에서 매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배우고 싶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미국에서의 생활은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미국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중국, 독일, 핀란드 등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서 대화 5분만에 느끼는 것은 이 시대에는 어느 누구나 본국 언어를 막론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어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제2외국어를 꼭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강의를 통해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에 졸업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취업을 위한 준비도 하면서 있습니다. 이번 영어권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후에는 제2외국어도 사용 할 수 있는 직장에 입사하고 싶어 해외영업과 해외무역관련 직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2012년에 가는 교환학생들도 직접 다른 문화권에 가서 언어뿐만 아니라 그 다른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워 오면 좋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 여러분, 화이팅!